해킹 취약한 임대망 BIS 속수무책 뚫렸다

〈버스정보시스템〉

'여수 버스정류장 야동 사건'으로 본 광주·전남 실태

유럽 IP 해커 패스워드 우회 접속 원격제어 기능 무력화
아시아IP 해커 중앙시스템 공격도…방화벽에 막혀 실패
광주 454대 모두 임대망…방화벽 설치 등 대책마련 시급

'여수 버스정류장 음란 동영상' 사건은 해커가 유럽 등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버스정보안내기(BIT)의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직접 접속,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대다수의 버스정보안내기가 동영상이 유포된 버스정보안내기처럼 네트워크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방화벽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커가 여수 시내 174개 전체 버스정류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아닌 음란 동영상이 상영된 여수시 서교동 한 버스정보안내기로 직접 침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커가 이용한 IP는 유럽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지난 24일 밤 10시24분께 문제가 된 단말기의 버스정보시스템을 차단, 밤 10시54분께 1분56초 분량(6.96Mb)의 음란 동영상을 원격으로 다운받아 반복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커는 시스템에 있는 패스워드를 우회해 접속한 뒤 여수시청 교통통제센터 직원의 원격제어 기능을 무력화하고, 접속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30분께 해커가 아시아 IP를 이용해 여수시청 교통통제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침입하려다 방화벽에 막혀 실패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직접 공격한 해커와 여수시청을 공격한 해커가 동일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중앙 시스템은 방화벽 등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만, 개별 버스정보시스템은 보안상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커가 버스정보안내기를 쉽게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의 버스정보안내기도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관련부처 등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가망(폐쇄망)을 구축하거나, 임대망으로 운영되는 안내기에 별도의 방화벽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광주 454대, 목포 57대, 광양 80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모두 임대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는 174대 중 문제가 된 서교동 것을 포함해 134대, 순천은 210대 중 204대가 임대망이며 자가망은 각각 40대, 6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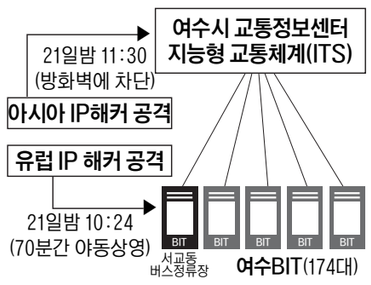
지자체가 자가망 구축을 꺼리는 이유는 초기 구축시 임대망에 비해 10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KT 등 통신회사가 기존에 설치해둔 통신선로 대신에 별도의 통신선로를 개설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6일 관계 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5~6월 사이 모든 버스정보안내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방 점검 등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 버스정보안내기를 관리하고 있는 KT측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여수 버스정류장 해커 공격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번 울린 사기범

저금리 대출 미끼 수천만원 뜯어낸 대부업체 직원 구속

교도소 수감 중에도 돈 가로채

보이스피싱 피해로 진 빚을 갚으려고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50대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

고흥경찰은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고 저금리에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사채를 빌리기 위해 연락해 온 금융기관 직원 A(53)씨로부터 179차례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이씨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 30%에 가까운 금리로 빌린 5000만원의 이자가 감당이 안 되자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저금리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3400만원을 날리고,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수수료를 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유사수신대부업체 직원 이씨의 솔깃한 제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2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네기 시작했고, 지난 2014년 6월 이씨가 사기대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출소하면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겠다'라는 편지에 속아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이씨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에도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채까지 빌려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빚에 허덕이다 보니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흡연 훈계받은 고교생 아파트서 투신 중태

흡연 등의 이유로 교사들에게 훈계를 받은 고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를 중간에 빠져나와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 중태에 빠졌다.

지난 27일 오전 11시57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A(17)군이 머리 등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한 A군은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화순 모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등굣길에 친구들과 흡연하다가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돼 꾸지람을 들었다. 오전 9시께 1교시 용접 실습 시간에는 실습복을 입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또다시 훈계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A군을 가리켜 "왜 실습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A군은 실습장을 뛰쳐나갔다. 1교시 종료 후 또다시 담임교사에게 불려가 흡연 행위 등을 지적받자 A군은 "왜 선생님들은 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며 소리치고는 학교를 벗어났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 측에서 일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에 학교폭력이나 체벌, 학대 등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진의료원 의료진 '나이롱 환자' 보험금 1인 최고 1000만원

강진의료원 의료진이 근무지 병원에 입원한 뒤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경찰은 일반 휴가나 근무기간에 근무지인 강진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의료진 39명 중 36명이 민간보험금을 타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1~3개의 입원·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44개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근무 기록과 간호 및 입·퇴원 기록 등을 조사해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인력부족 탓에 몸이 아파 입원했지만 병가를 내지 못하고 틈틈이 병원 업무를 했다는 일부 의료진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고추야 잘 자라거라 고추는 줄기에 힘이 없어 옆에 튼튼한 지지대, '고춧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주는 게 중요하다. 28일 곡성군 오곡면 고추밭에서 마을 주민이 지지대를 세우느라 분주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업체에 수년간 금품 받은 전 한전 직원 법정구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체 관련자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전 한국전력 직원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64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기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서로 다른 공사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모두 49회에 걸쳐 총 64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6년 미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수감 교도소 전격 압수수색

16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7일 피의자 김모(37)씨가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수감실에서 서신, 메모, 사진 등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압수품 중 살인 사건과 연관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DNA 이외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김씨가 범행을 부인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나주경찰서는 사건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수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륜 폭로 막으려면 돈 입금해" 대포폰으로 무작위 문자

쌍나팔

○…대포폰을 이용해 "있지도 않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살포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 광주지역에서 A(60)씨 등 2명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륜 증거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수차례 보내 4억여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불륜 폭로를 막으려거든 돈을 입금하라'는 협박을 일삼다가 A씨 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면 검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705	1	북구 문산로61, 107동 3층 304호 59.965㎡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6타경 873	1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43, 102동 7층 702호 [소촌동,대화아파트] 59.99㎡	아파트	90,000,000 90,000,000	
2016타경 996	1	서구 금호동 808 금호베스트빌 301동 10층 1001호 132.749㎡	아파트	370,000,000 370,000,000	2015.12월말까지 관리비436,770원 미납된상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63440	4	나주시 이창동 78-26 223㎡	대	51,887,600 51,887,6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나주시 가마태길 4 1층64.72㎡ 2층31.15㎡ 제시외 창고 등 48.3㎡	단독주택		
2016타경 71	1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 119-3 758㎡	전	39,144,200 39,144,2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수목포함.목록1현황주거나지
		나주시 봉황면 신용길15 48㎡[공부상면적과실측면적상이.현황공실] 부속건물 물치[지붕대부분파손]45㎡ 제시외 주택등 150㎡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9993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산10 1785㎡	임야	53,550,000 53,550,000	맹지
2015타경 20610	1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516-1 1289㎡[현황 일부전[휴경지]]	임야	16,580,000 16,580,000	일괄매각.박정욱,박영호,박정호지분전부
		동소516-2 245㎡[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2015타경 24322	1	장성군 남면 분향리 1106-2 73㎡[현황묵전.소로2류[폭8m-10m]저촉.인접지와경계부분에타인소유수목식재추정]	전	4,088,000 4,088,000	지적경계명확하지 않는바경계복원측량요
	2	동소 산71-3 496㎡	임야	7,539,200 7,539,200	연고자미상의분묘 2기소재
2015타경 24438	1	담양군 남면 무동리 244 1660㎡[분묘소재,인접지번과경계가불명확하므로측량요]	전	19,920,000 19,9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62904	1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353-1 367㎡[현황묵전및묘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175,000 9,175,000	소유자미상의분묘 소재.맹지
	2	동소 350-7 150㎡[현황묵전및묘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300,000 3,300,000	소유자미상의분묘 소재.맹지
2015타경 63440	1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438-1 6581㎡	과수원	99,421,000 99,42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매각
2016타경 1517	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366 2225㎡[신강식,신원식지분각1/2전부]	답	66,750,000 66,750,000	맹지,묵답.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0066	1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533-1 2081㎡	답	47,863,000 47,8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 22623	1	광산구 월계동 757-5 모아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 비101호 165.000㎡	근린시설	217,000,000 217,000,000	현황조사당시공사중임
2016타경 286	1	북구 신안동 150-14 203.6㎡	대	993,698,460 993,698,460	일괄매각.목록2소재옥탑및제시외건물포함
		북구 경양로 97 1층61.78㎡ 2~6층각164.56㎡ 제시외 주차장 139.5㎡	숙박시설,여관		
		북구 신안동 150-2 160.3㎡	대		
[자동차,중기]					
2016타경 60646	1	사용본거지: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171 등록번호:22수4453 차명:싼타페 연식:2015	자동차	30,000,000 30,000,000	보관:광주광산구 풍영정길65-15
[기타]					
2015타경 63440	2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438-2 6109㎡	과수원	96,719,000 96,71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매각
	3	동소396-19 795㎡[김정곤지분1/3전부.지분매각.인접지번396-4건물본건까지침범추정.타인소유건물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과수원	2,146,500 2,146,500	축사부지및도로로 이용중.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5. 16.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5. 23.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동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